

전국교회 천만 성도여!

전심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새 생명의 역사인 부활절에 전국기독교연합은 전국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2014년 10월 3일(목) 한국교회 기도의 날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35만명의 성도들이 세종로, 을지로, 남대문로 등 서울 시청 광장과 도로에 앉아 정오부터 2시간에 걸쳐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광경.

만유(萬有)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23)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18:19)

작년 10월 3일 <한국교회기도의날>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35만 명의 성도들이 서울시청 앞 대한민국 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로, 남대문로, 을지로의 광장과 도로에 앉아서 정오부터 2시간에 걸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대회를 이틀 전에 강력한 태풍 타미크이 한반도로 진입하였고, 대회 당일에는 서울에 많은 비와 세찬 바람이 밀어 닥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랄게도 대회 전날 밤 갑자기 태풍의 속도와 진로가 변경되어 서울에는 당일 새벽에 가랑비가 조금 내린 것뿐이고 그 후로는 바람도 없고 비구름도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 각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출발할 때 비 바람이 세차서 기도회는 폭풍우 속에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서울에 들어오니 푸른 하늘이 보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 징조를 보이셨다는 생각을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기도회는 날씨뿐 아니라 찬송·성경복독·대표기도·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진행되는 순서와 수백 명의 헌신적인 청년들의 안내와 찬양인도 그리고 사용한 지리 정리까지 시종 질서정연하였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또 개최하여 달라는 요청뿐 아니라 깊은 감동과 거룩한 전율을 느꼈다고 형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 주신다는 징조를 보았고 확신을 얻었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이며 중재대한 선택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과 여당국회의원들의 공공연한 발언은 이번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존립과 교회의 존립에 관계된 선거인 것을 알도록 숨김없이 표명하여 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전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을 다른 방법으로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특정 장소에서의 모임에는 예로 사함이 많습니다. 온 라인으로 하면 그 예로 사함이 모두 해결됩니다. 남녀노소, 유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날> 진행처럼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기도 외의 다른 부분은 개인, 가족, 교회 등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를 주관하고 협력하시는 분들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한국교회연합기도회홈페이지(pack.or.kr)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시청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혹은 소리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한국교회연합기도회홈페이지(pack.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기본으로 하루 3회 공동기도문을 간절히 믿음과 믿음으로 읽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교회당에서의 모든 예배 시마다 모든 분이 함께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부활절연합예배에서도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남녀노소 일천만 성도 모두 참여하되 날과 시간을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모두 합하여 수천만 번 아니 수억 번의 호소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 보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기도문 내용에 동의하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심정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전국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전국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많은 분이 동참하도록 알려 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시65:2)

우리의 믿음과 결의

1.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2.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는다. 3. 나는 66권의 성경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4.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다. 5. 나는 성경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6. 나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7. 나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건국되었음을 믿는다. 8. 나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 특히 아시아선교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9. 나는 자유와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북한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 될 것을 믿는다. 10. 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을 배격한다. 11.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수호를 적극 지지한다. 12. 나는 성경적 신앙에 배치되는 제도와 법률(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나는 위와 같은 믿음과 결의를 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분들과 주 안에서 협력한다.

I.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회개기도문)

“창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반민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나라의 역사는 셀 수 없이 많은 수난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숏한 수난을 겪었음에도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라의 내일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며 사고방식에 관련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자학하는 풍조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무시하고 배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정신과 사고를 조정하는 자들이 있지 않고는 이런 사회현상이 민연할 수 없음이 자명(自明)합니다.

우리나라를 오늘날의 번영과 부흥이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미국에 대한 감사, 우방국가들에 대한 감사,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 산업발전을 위해 피땀 흘린 기성세대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도리어 불평하고 입신여권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연한 참답한 현실은 교회가 방심하고 방종함으로 인한 자업자득입니다. 다수의 교회가 세속화를 무분별하게 유입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인본주의적 예배로 전락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는 교단과 탑산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성직자와 신자들이 왜곡된 성공을 추구한 결과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된 성공은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 자체라는 사실을 망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헌법을 도외시키고 국가와 교회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인본주의적인 이런 저런 이유로 침묵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탄이 자기 하수인을 유지원부터 대학교까지 삼자이 신학교와 교회에 침투시켜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 율리관을 심고, 유물론과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사회주의 사상으로 빨간게 물들게 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한 죄를 회개합니다.

교단과 강단에서 성경에 어긋난 교훈과 설교로 복음을 혼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성과 이종언어와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도리어 그들을 추종하고 영웅시 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신앙과 행위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한 모든 죄를 통회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II.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호시기도문 1)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주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국도의 위기에 처한 안보와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빈집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굶어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과 온 국민은 악하고 불의하고 기만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행방하고 역행하는 자들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됨이 모두 드러나

므로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설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녕과 발전은 자들의 재력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도모는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한 꾀에 자신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말살하려 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인륜도덕의 원리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애타하며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는 슬기와 담대함과 강인한 정신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을 애곡하여 선전선동 하는 자들의 거짓정보에 오염된 국민들이 그 진상을 확실하게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량한 국민들은 진실과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 없이 곧장 옳은 데로 돌아가는 용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른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성경대로 믿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성경관 기독교관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들을 철저히 배격하며 그 무엇보다 성경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국가 사회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선출하는 용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호시기도문 2)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사건으로 알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국선열들과 결사도모 하는 수 많은 애국자들과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섭리하셔서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셨고 나라가 건국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비하고 훈련시킨 탁월한 지도자를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입헌(立憲)국가를 수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취월장 발전하여 세계각국의 팔목상대(肘目相對)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조 받아 겨우 끼니를 해결하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진선 이북 동포들은 공산당 치하에서 70여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이 위태로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유와 복음의 능력이 북한을 뒤덮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호소와 지금도 감동과 강제노동과 공개처형의 위협에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눈물의 간구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산가족들,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분들이 그로운 가족을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참모들 그리고 상·하원의원들에게 명철한 판단력을 주셔서 어떤 일로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지(堅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독재자들이 국가 권력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건국,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6.25의 위기 극복, 놀라운 경제부흥, 경이로운 교회부흥의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유럽의 교회들을 깨어 일으키며, 온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임무를 우리나라와 교회에 맡겨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탄이 이 일을 행방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종교다원주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확립하고 교회에 침투시켜 우리나라와 교회에 위기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사탄의 계획이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신봉하는 정권은 기간, 인권유린, 폭악이 통치수단이 되고 마침내 경제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지난 70여년 역사를 통해 극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울과 경계로 삼는 것이 마땅한데도 “역사의 교훈은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적용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국가체제변역(變易), 삼권분립폐지,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차별금지법, 연방제 등을 위한 헌법개정이 현실화 될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자민과 나라와 방심이 이런 위기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각성한 국민들은 자책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에 오염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명 의식을 가진 헌신자들이 각종 모임과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하여 절규하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길거리와 광장에서 지난3년을 하루같이 추위와 더위와 눈비를 무릅쓰고 시위와 행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사랑으로 에워싸인 상황이 된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선과 의와 진실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 전국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pack.or.kr)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총연합회, 사세계기독교총연합회, 사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에스다기도운동, 한국기독교영광회, 대한기독교평신도협의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도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한사랑선교회, 바른민권연합, 교회를사수하는연합, 운영위원장·임영문 목사■ 기획위원장·김철민 목사■ 홍보위원장·이억주 목사■ 대외협력위원장·박진홍 목사■ 미디어담당·이동현 목사

감염병 예방 명목 ‘종교탄압’ 우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을 통해 종교시설 등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올라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한국교회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에 대해 “헌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해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해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49조 제3항 신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등을 제한하는 등 종교적 탄압에 무게를 두고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대서명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itpald=PRC_C2F0N0I3L1W9T1B8JLD6L4X9S1C6S0



한장충 ‘나라사랑 미스바 긴급 금식 기도회’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엉터리 정치인 절대 투표해선 안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수를 목사·한장충)가 4.15총선을 위해 수난주인과 선거 당일까지 금식기도를 한국교회에 제안했다.

한장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나라사랑 미스바 긴급 금식 기도회’를 15차에 걸쳐 개최해 오고 있다. 미스바 금식기도회는 한장충과 함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도 참여해 8개 권역별 중 5개 권역 15개 도시와 지역 연합회 대표들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2차 기도회는 지난 3월 12~14일까지 한장충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6개 회원교단 중 18개 교단이 참여했다.

또한 3월 19~21일까지 경기총 중심으로 25개 시군연합회가 참여했으며, 3월 29일에는 전 교단적으로 금식기도 주일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를 대표회장은 “17개 광역시군 연합회 외에 구국선교단, 부흥사 단체, 기도원 등에서 수 만 명의 성도들이 금식기도회(한 끼, 1일, 2일, 3일 등에 동참했다)”면서 “제 3차 기도회는 4월 6일~11일 수난 주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회장은 또 “한국교회 운명을 좌우할 4.15 총선까지 금식기도를 제안한다”면서 “주의 종들과 전 성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회장은 특히 “이 기간 동안 한 끼, 1일, 3일, 1주일, 10일 등 자유롭게 기성, 교회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면 된다”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부름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세군, ‘마스크 기부’ 캠페인 전국으로 확대 시행

2차 캠페인…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 예정

구세군은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를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내 마음을 담다》캠페인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매일 일선에서 감염과 전파 위험성에 노출되는 환

경미화원, 버스기사, 경비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마스크나 위생용품을 자선냄비를 통해 기부하여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나누는 캠페인이다.

지난 19일까지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과

잠실 제2롯데몰, 부산역, 그리고 대전역에서 1차 캠페인을 편 바 있는 구세군은, 2차 캠페인은 9개의 구세군 지방본영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진행한다.

자선냄비를 통한 《내 마음을 담다》캠페인 참여방식은 미개봉 된 마스크와 현금으로 기부 가능하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또 ‘#내마음을담다’ 챌린지를 SNS에서 실시하여 어려운 상황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응원 릴레이 운동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마스크는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접수 기자회견

“경기도는 성평등을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양성평등의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선 건강한국기초단체기도민연합(상임대표 최승균 목사)이 지난 4월 3일(금),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청구 17만7천명 서명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인 조례 개정청구 서명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실무총무 윤지환 목사의 사회로, 국민연례와 함께 상임대표 최승균 목사의 인사말, 전문위원장 김원형 교수의 경과보고, 학부모대표와 시민대표의 발언, 서명청구인대표 박종호 목사의 성명서 낭독, 실무총무 황진석 목사의 구조제정으로 도민연합의 뜻을 전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도청 민원실로 이동해 원로된 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을 접수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성평등조

례 개정청구 서명은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6개월 동안의 서명운동을 마치게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7만 7천명의 도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19세 이상 주민 10만 8천명 이상의 서명(유효수)이 접수됐을 때에 도청을 통해 신청하면 명부열람과정을 거쳐 ‘경기도 조례규칙심의

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번 서명을 통해 도민연합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성평등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결과 양분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가 있는 경기도를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꼭 투표 합시다”

한국교회교단장회 소속 23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 사무총장 참석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총회장과 총무들이 오는 4월 15일(수)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었다.

총회장과 총무들은 지난 1일(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정례모임 후 세계성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의 슬로건이 적힌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촬영을 했다.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소개하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는 예정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예정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 예정고신 총회장 신수인 목사, 기독교장로회 육순중 총회장, 예정합신 총회장 문수석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류정호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윤재철 목사 등 23개 주요 교단 총회장과 총무, 사무총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세계성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아름다운 선거 협업사업’ 단위로 선정되어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전국 시군 성서화운동본부에서 주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목적은 전염병 예방인가 예배 중지인가”

예장대신총회 성명서 통해 정부의 예배 통제 강력 반발

예장대신총회(총회장 황형식 목사)가 3월 26일(목)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배는 정부가 통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신총회는 “일부 지자체장들과 국무총리, 국회가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시설폐쇄, 전수조사, 행정권 발동, 구상권 청구 등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지자체장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신총회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고유한 권한이고 따라서 교회 외에 누구도 예배권 행사를 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면서 “성도는 신앙 양심으로 교회에 위임된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도 이것을 존중하며 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공권력으로 예배를 강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고,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反)하는 위헌적인 일”이라면서 “일부 감염사례로 전체를 일반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총회는 특히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코로나 확진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니라는 보고가 있다”면서 “몇몇 교회감염을 말하는 경우들은 주로 이단들에 의해서,

혹은 외부에서, 혹은 문제성이 있는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이고, 그것도 신천지 이단을 제외하고 전체 확진자의 비율로 보면 극히 소수”라고 지적했다.

이울러 “문제는 국소수의 현상을 근거로 기독교 전체를 일반화시키고 동일시하는 것”이라면서 “만일 일부 관공서의 일부 공무원이 확진자라면 정부의 모든 관공서를 폐쇄하고 공무를 중단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일인가? 대중교통시설에서 소수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대중교통을 싸잡아서 운행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일인가? 일부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성시화, 목회자 생계비 지원

대구지역 전달, 83곳에 50만원씩 월세지급



대구성시화본부(대표본부장 김홍기 목사는)는 지난 3월 25일(수) 세계성서화운동본부를 통해 모금된 전국 각지와 해외 성시화 운동본부 후원금을 비롯한 자체 모금한 성금

을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의 어려운 교회와 학원선교 단체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월세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목회자 생활비

를 지급하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후원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원 선교 단체들에게 월세 또는 목회자 생활지원비로 1차로 모금한 성금을 각 50만원씩 83곳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지원했다.

대구학원복음화협의회 대표 임호근 목사는 “학원 선교단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너무 힘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구성시화본부 대표본부장 김홍기 목사는 “전국 각지의 도움과 행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도와주신 교회, 단체를 대구의 교회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며 “계속 성금이 들어오는 대로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말했다.

식사나눔 무료급식 사업 재개 도시락으로 제공

배고픈 이들에게 나눔사역 이어가

국제 NGO 다일공동체의 식사나눔이 코로나바이러스19로 잠정 중단됐던 무료급식 사업을 지난 3월 23일(월) 재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급식소 안에서의 배식과 식사를 대신해 당분

간 도시락으로 제공한다.

공동체는 1988년부터 청량리역 인근에서 취약계층 어르신과 무의탁노인, 노숙인들에게 매일 무료급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



로 인해 지난날 2월 21일(금)부터 급식을 잠정 중단했다가 3월 9일(월) 다시 무료급식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의 큰 확산세에 다시 2주간 중단 기간을 거쳐 약 한 달여 만에 문을 열었다.

공동체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안내하며 위생장갑 및 위생도 착용, 봉사자 간 일정 거리 유지 등을 고지하며 방역 지침을 따르는 데 힘쓰고 있다.

은혜로 사는 목회자들이 되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순남 목사)는 지난 2월 17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열림교회(담임 김명주 목사)에서 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증경회장 조병희 목사(기정순복음교회)의 엠 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김강수 목사(순복음아라교회)의 대표기도, 김연옥 목사(행복한 선교교회)의 성경봉독, 김주성 목사(순복음민들레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3차 나라와 민족복음화 위한 기도회 개최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고분 장상철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이어 2부 순서로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인도로 '민족복음화와 아산시 성화를 위해', '한국교회부흥과 예배활성화를 위해',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발전을 위해', '중국어한국어번역위원회 소명을 위해', '4.15 총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폐지를 위해' 이정팔 목사(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상임회장), 김병완 목사(공동회장), 한상봉 장로(아산시장로연합회 회장), 박해서 장로(후원회)가 주례별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3부 순서는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의 인도로 이기연 목사(아기연 사무총장)의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사업보고, 장현원 목사(총기연 서기)의 충남도연합회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안흥규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및 회상근 목사(지도위원)의 조찬 및 간담회를 위한 기도 순으로 2020년 제3차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 참석자들은 준비된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진동영 목사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영 목사)는 지난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7시 산수감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에 앞서 대표회장 진동영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먼저 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와 우한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더욱 기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본부장 이두영 목사의 대표기도 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고분 김소은 감독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삼하 24:15-17 말씀을 본문으로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김 감

독은 "다윗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온역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다윗은 재빠르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다. 다윗이 죄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한 것처럼 코로나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목회자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과 능력의 행렬을 만나기 위해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3월 23일(월) 오전 11시 청주 주사랑교회(담임 신병설 목사)에서 제59차 정기 지방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신병설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조재호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가 록 7:11-17 말씀을 본문으로 '청년이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본문에는 가장 기쁜 행렬이 있었고 가장 슬픈 행렬이 있었다. 가장 기쁜 행렬은 주님을 따르는 행렬이었고 가장 슬픈 행렬은 목자가 죽은 상여의 행렬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행렬이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생명의 행렬을 만났다. 즉 예수님의 행렬이었다."라며 "슬픔의 행렬이 생명과 능력과 위로의 행렬을 만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이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니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다. 슬픔을 만난 과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절망감에 휩



우는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어떻게 사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감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절망의 행렬에서 있는 분들은 회합의 행렬을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는 조병희, 김성희 전도사(하나님사랑순복음교회), 김성미 전도사(장대교회), 지평필 전도사(생명샘교회), 박하라, 이결아 전도사(영주중앙순복음교회)에게 전도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지방회 순서에서는 서기 보고, 총무

보고, 재무 및 회계 감사보고 그리고 각 위원 회보보고와 각종 회무를 문서로 처리하고 지방회 신임 선출에 들어갔다.

제59차 신임 선출에서는 지방회장에 신병설 목사(청주주사랑교회), 부회장 김용 목사(증평세희명교회), 총무 조재호 목사(장대교회), 서기 기호선 목사(교신순복음교회), 회계 정재광 목사(생명샘교회), 재무 김윤배 목사(중앙샘교회)가 뽑혀 한 회기 동안 지방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게 되었다.

이어 신임 지방회장 인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자리를 옮겨 청주 주사랑교회에서 마련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제17차 정기지방회 갖고 합심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정진 목사)는 지난 3월 31일(화) 순복음참좋은교회(담임 오세준 목사)에서 제17차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예배는 박웅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 인도에 이어 지방회 부회장 오

세준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무 강인덕 목사(순복음분향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시 46:7-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총회와 지방회, 순복음목장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광덕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이정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3부 지방회는 지방회장 이정진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 육준수 목사(흥기로순교교회)의 회원점명회 기록 서기 선출, 부회장 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전 회회록 낭독, 총무 및 서기 보고, 강인덕 목사의 재무 보고, 김장수 목사의 감사 보고 등이 이어졌으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선거인단 선출, 안건 결의, 기타 안건 토의 후 폐회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지방회원들은 순복음참좋은교회에서 제 공한 식사를 즐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이번에 선임된 신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오세준 목사, 부회장·총무 육준수 목사, 서기·회계 강인덕 목사, 재무 문찬우 목사.

목양신문지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후 '목양신문 보기' 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쇠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 생명나눔

“부활 생명 온 세상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고통 받는 이웃에게 마음을 나눠주세요.
각막기증은 예수 그리스도도의 사랑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자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주일예배에 초청해주시면 본부에서 직접 방문해 성도 분들께 생명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고, 희망등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생명나눔 예배안내 문의 | 교회팀 02-363-2172

■ 생명의 말씀 ■



김덕영 목사

•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 진리교회 담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약 5:15-18

만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어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비를 오게도 했고 오지 않게도 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 것입니다.

1.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

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지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써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적인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회개하여야지 만의인이 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15-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

든지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이나 기타 어려운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기도받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만 위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의인이 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가 위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고집을 부리며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고 내 양심에 거라 끼는 것을 자꾸 탐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동의,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참다운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를 떠나서

는 믿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단순히 진리의 지적인 삶이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주관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여 자신이 무엇

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간절하게 할 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앞두고는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팔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의 호흡인 동시에 유일의 무기로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위로와 능력을 받아 이 세상과 마귀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되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를 드려야 되며,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하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여 역사 하는 힘이 많은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 정

한교총 김태영 회장 총리 강력규탄



한국교회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는 지난 3월 25일 성명을 내고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교총은 “전국 6만여 교회 중에서 집단감염을 통한 확진자 발생은 소수 포함 10여 건 이하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교회에 억압 중단촉구



한교연(회장 권태진 목사)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총리는 특별단화를 통해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 등 일에 답을 수 없는 용어로 한국교회를 검박했다.”며 목과 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훈 교수 김용민 씨 분쟁 비판



이정훈 교수(엘정책연구원장)가 지난 4월 2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회가 조심해야 할 선거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평화나무의 김용민 씨가 분쟁을 만들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염포를 놓은 것을 비판한다”고 했다.

한남대, 대면수업 4월 27일 부터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는 대면 수업 개시일을 4월 13일에서 4월 27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국가적으로 초·중·고 오프라인 개학이 연기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이번 학기에 한해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내 놓았다.

지난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 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 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한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용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취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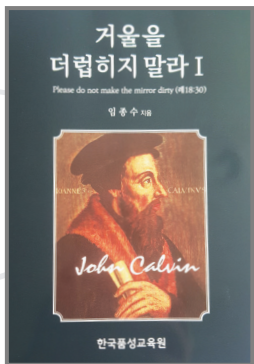
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총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되는 물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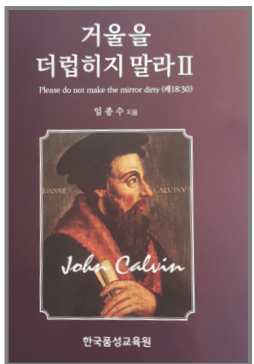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공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다른 조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 뿐만 아니라, ‘총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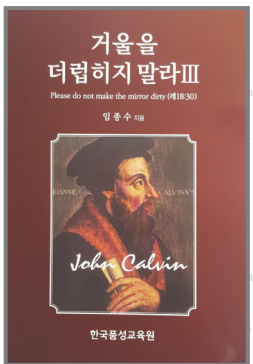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목회자 평생교육

김용덕 목사 // 영동제일교회 담임, 교육학 박사

호모 키비쿠스 : 시민으로서의 인간

복음적인 신앙인이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나라 도래 보다는 내세에 하나님나라 도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신앙적인 이유로 사회참여, 자세히 말하면 시민교육이나, 시민운동, 시민혁명에 대해서 별로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5년 전에 시민에 대한 주제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시민운동은 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조직에 대응하는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시급한 상황이기때나느니라라고 한다.

첫째로, 어원을 보면, 라틴어 '부르가리우스 (burgarius)' 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용어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본래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공동체인 폴리스(police)를 구성하고 지배했던 사회계층을 말한다.

둘째로, 시민운동의 발전과정을 본다면 먼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시민이 있다. 이는 특수한 계층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여성이나 노예 및 이방인 등은 시민 계급에 포함 되지 않았다.

나이가,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다. 중세이후 도시가 발달되고 신봉 상업계층(부르조아)이 성장하면서 봉건제도가 해체되고, 도시를 넘어 상공업자 중심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 계층이 형성되었다. (1688영국, 1789프랑스)

또한 현대적 시민 글로벌 시민으로 계급적 의미와 차별이 해체됨에 따라 계급적이거나 특정사회 계

층적 성격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980한국, 2010중동아시아재스민혁명)

우리 대한민국은 625사변의 전쟁 잿더미 속에서 놀라운 경제부흥을 이루었고, 1980년에는 학생운동을 위시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낸 아시아와 세계 여러나라중 개도국들이 몰도넬로 삼는 나라이다. 말하자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순수한 대학생들이 주축이된 민주화운동(PD)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NL계열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NL계열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이 무엇이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통치이념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로서, 유물론적 무신론의 사상이다. 이 사상을 변용하며 김일성일가가 수령 유일 지배체제와 권력세습을 정당화 하기위한 사상인 것이다. 이 NL반열 주체사상(주사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노조 각 분야에 침투하여 작용하고 있고, 권력을 잡은 이후로는 북한 체제인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북과 고려연방제를 구성하고 반미, 반일을 외치면 진북, 진중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에 어느 목회자가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공산화되면 교회 예배는 없어지고, 세계 제일의 교회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과 결사항전 해야 합니다."라고 직원, 교역자

예배에서 설교중에 폭탄선언을 했다. 이어서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가 창립되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여러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애국동지회를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에도 등급이 있다"고 했다.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지만, 질이 다르다."

1) 국가지도자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종북주의 사회주의 집권자들이 잘 살게 해 줄 것이다"이라며, 나는 병관하고, 보지만하는 민족, 글도 잘 모르고 풍둔에 막히는 자들, 이는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다.

2) 백성이 있다. 글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 것을 알지만 이들은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하는 사람들이다.

3) 시민이 있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대인도 찾아내는 계층이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망해가고 있다. 경제는 폭망하고, 민생은 파탄내고, 안보는 붕괴되고, 외교는 실정되고, 기업은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노조는 폭력화가 되고, 주적 김정연에게 나라를 통치당하는 모습과, 우리나라 지도자는 주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운 1) 민주인가? 2) 백성인가? 3) 시민인가?

우리는 모두 시민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

논평

김소윤 감독 // 온양온천감리교회 원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삼하 24:15-17

“금번 총선에서 이 나라 국민들이 분명한 선택으로 귀한 한 표를 행사하여 그릇된 것을 심판하여 이 나라를 기필코 구원해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반기운 사람들과 만남도, 같이 식사도 못하는 상태에이 진정 인간사회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분은 성군이 다윗 임금의 말년에 찢어질 것 같은 나라에 대해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것과 그 재앙을 어떻게 수습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고, 지금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감행하였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인구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지시로 제사장들에 의해 인구조사를 실시하셨던 것입니다. 본장에서 인구조사는 군대장과 요양을 필두로 내세워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다윗은 일생 동안 그렇게 해왔었는데, 말년에 자기 과신에 대한 유혹에 빠져 범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의 심판으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칠년 기근 둘째, 석 달간 쫓김 셋째, 삼일간의 온역. 다윗은 가장 쉬운 것으로 판단된 삼일간의 온역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본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왕이 취한 태도입니다. 1) 진심으로 회개한 것. 다윗의 위대함은 무릇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즉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잘못되었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자식은 더욱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됩니다.

2) 다윗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생각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것입니다. 3) 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재난의 원인을 백성이나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 탓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에 순종하여 아라구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썰고 속죄 제단을 쌓음으로 이 엄청난 재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라구나 타작마당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뒤에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된 곳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국의 정상들의 자세가 매우 अच्छ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을 빗대는 말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은 이름을 빗댄 재앙이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빗대는 말이 아니라 근거 있는 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6차례나 걸쳐 중국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지만 대통령도 외교부 장관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두가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국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면 무조건 격리 가두어 버렸습니다. 대만이나 몽골에서는 처음부터 중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한 시에 있는 이단 신천지교회 연수원에서 시작되어 폭발적인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대만은 물론 중국마저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2월 28일까지 5억장 정도 중국에 수출하였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북한 인민군들이 made in korea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들 합니다.

현재까지 현정부가 중국이나 김정은에게 굴종하려는지 백성들의 체면이 구겨져도 보통이 아닙니다. 금번 총선에서 죄경화, 주사파, 운동권으로 뭉쳐진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계몽해야 합니다. ① 사회주의 공산주의 ② 현 정부 심판해야 합니다. ③ 이번 총선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선거입니다. 특히 지금 조국당이 탄생하여 조국이나 청와대를 바로 잡겠다는 검사들을 쿠데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 합니까! 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조국에게 진 빚이 많다고 했습니다. 무슨 빚입니까?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한 촛불 시위에 대한 빚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입니다.

문대통령은 메르스 때는 박 대통령을 얼마나 비난하고 책임 추궁을 했습니까? 지금 자신은 다한데 반성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히려 백성은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부부가 파란대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코로나 재앙은 인재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총선에서 이 나라 국민들이 분명한 선택으로 귀한 한 표를 행사하여 그릇된 것을 심판하여 이 나라를 기필코 구원해내야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방해, 탄압하는 이재명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31일(화) 오전11시

장소: 37도청 정문 앞

주최: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일목연)외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일목연)은 3월 31일(화)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교회탄압과 예배방해 행위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교회탄압과 예배방해 행위에 대한 성명서
교회 예배를 방해, 탄압하는 이재명을 규탄한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전국에 계신 1200만 성도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동포여러분! 요즈음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용 중 한 번도 경향에 보지 못한 나라를 경향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 교육, 언론, 방송,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느 한 부분도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한밤이 부정당하고, 낮은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진중과 반미의 나라로 모든 분야를 하향 평준화하여 북한의 수준에 맞춰 통일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한밤을 위해 하여 위임받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인 사회주의국가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나, 한가총이 주축이 된 기독교인들이 유일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건의 원흉이 기독교인양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패렴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나 질병본부에서 중국인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방역에 가장 최우선이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으나, 이러한 건의를 무시한 방역한 정책들이 오늘과 같은 전염병 사태를 몰고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일제시대에도 6.25전쟁 시에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집행 잘못을 신천지에 뒤집어씌우더니, 이제는 기독교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 21조 1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형법 제 158조의 예배방해 금지 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밤의 하위법인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등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기독교인들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솔선할 것이며, 한국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온 소중한 예배를 묵숨걸고 지킬 것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한국교회수호결사대, 합신교단경거목회자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카이로시아카데미, 옴은가치시민연합, 강서연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안동반시민대책위원회, 총신84교회사랑연합, 자유통일목회통일목회자연대 외 27개 시민단체 및 목회자 일동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향국무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원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동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워터,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 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 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갈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세어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⑨ 젤 캔들 립밤 (15ml)

인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러운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復活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

서울서지방회



회장 고현규 목사
사랑장동세사랑교회



총무 우선원 목사
소암순복음

서울중부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세물교회



총무 이인호 목사
홍제은혜교회



회계 정혜란 목사
은전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조선남 목사
대림별교회



총무 이회관 목사
순복음신니교회



저무 회계 주청민 목사
별교회

서울강남지방회



회장 정경기 목사
성명동남교회



총무 이성호 목사
대배교회



서기 이연옥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저무 신영희 목사
부활순복음교회



회계 임중희 목사
장사당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국영 목사
진리교회



부회장 방정단 목사
임비뉴얼교회



총무 이기성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서기 심은애 목사
은혜사랑교회



저무 회계 김준숙 목사
회복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전혜숙 목사
열린복음교회



부회장 은균호 목사
선한웃교회



총무 임형순 목사
순복음이연교회



서기 임재환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저무 우정순 목사
시온성순복음교회



회계 조광연 목사
드림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이은성 목사
은혜송리교회



부회장 조광선 목사
순복음반석교회



총무, 서기 윤두원 목사
부르신교회



저무 이정욱 목사
산성교회



회계 김정순 목사
형관순복음교회

경기남지방회



회장 정석연 목사
순복음화강교회



부회장 박복열 목사
오성사당교회



부회장 김남순 목사
흠문산수양관교회



총무 서경오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서기 김훈식 목사
순복음전안교회



저무 정세창 목사
안성은혜교회



회계 표한자 목사
시냇가에심은 나무교회



경기중부지방회



회장 이세원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총무 김동민 목사
동산중앙교회



서기 최남순 목사
영광교회



저무 조중순 목사
비전순복음교회



회계 박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은진지방회



회장 이석호 목사
대구은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우연 목사
영포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김경익 목사
안양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재환 목사
부곡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윤형권 목사
영통은혜와진리교회

경기서지방회



회장 김영관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부회장 김태권 목사
배근사평동교회



총무 금기원 목사
알교회



서기 김진영 목사
다우리교회



저무 오정순 목사
주성김교회



회계 최영희 목사
예전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이정진 목사
다시평교회



부회장 최우연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서기 윤준수 목사
향기로운교회



저무 김인연 목사
순복음봉향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강희문 목사
은혜소망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성명교회



저무 김동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진우 목사
주인의교회



부회장 조영만 목사
일선별교회



총무 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명교회



서기 설수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이득상 목사
푸른교회



총무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저무 회계 김병숙 목사
순복음양곡전교회

인천서지방회



회장 김정국 목사
명성순복음교회



총무 김진원 목사
예수이름교회



서기 손인환 목사
새성명교회



회계 김라임 목사
사랑의순복음교회

강원남지방회



회장 박순옥 목사
원주총성교회



부회장 이정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총무 최정희 목사
성광교회



서기 정주영 목사
강통순복음교회



저무 이종진 목사
주민의요양교회



회계 박규희 목사
원주성명교회



강원서지방회



회장 박성우 목사
평강교회



부회장 정희자 목사
백교회



총무 김재두 목사
순복음성산은혜교회



회계 김중애 목사
군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정운기 목사
대전당무리교회



부회장 이마순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이민규 목사
죽은나무교회



서기 차재민 목사
달뽕호동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안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부회장 김영진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총무 회계 이만복 목사
송교회



저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장자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장호순 목사
금강순복음교회



부회장 원문경 목사
세종중앙순복음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저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성대교회



회계 한정순 목사
예수사랑교회

청주지방회



회장 정익섭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김성경 목사
세계로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강문교회



총무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서기 박성환 목사
달산순복음교회



저무 회계 이만구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김경준 목사
후영순복음교회



부회장 신병식 목사
청주주사랑교회



총무 김 용 목사
새희망교회



서기 민병훈 목사
예광교회



저무 조재호 목사
창대교회



회계 정재광 목사
순복음성명성교회

전주지방회



회장 권우석 목사
창원순복음교회



총무 유영주 목사
열별교회



서기 권규식 목사
화문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復活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

부산광역시 지방회	 회장 정영진 목사 순복음감리교회	 부회장 박영욱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총무 조정화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	 저무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회계 황연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광주 지방회	 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총무 조갑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서기 김영호 목사 순복음은혜의강교회	 저무 김정순 목사 은혜의복음교회	 회계 배영애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전남 지방회	 회장 유관영 목사 순복음좋은나무교회	 총무 최강욱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광호 목사 참리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석 목사 별빛교회	전북 지방회	 회장 심혜원 목사 임마누엘교회	 총무 양희철 목사 창복순복음교회		 서기 김희배 목사 꿈이있는교회	 저무 박운석 목사 순복음심원교회	전라 지방회	 회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총무 유윤근 목사 순복음광영교회		충남 지방회	 회장 서베드로 목사 목포시내교회
제주 지방회	 회계 민순복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총무 안재홍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충청 지방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의천안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선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의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성주중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의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세소영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진주은혜의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제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의강교회)	 김인찬 목사 (정신교회)	 김양인 목사 (복음제일교회)	 임종제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세간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의천안교회)	 김희배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하나님교회)	 황종연 목사 (은혜의강교회)	 김병국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광교회)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국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박종석 목사 (은혜의천안교회)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덴교회)	 조갑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혜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대교회)	 정환우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배용환 목사 (순복음천안교회)	 옥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기호선 목사 (리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예스더 목사 (예수왕기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 문의 |

대구·경북의 아픔을 따뜻한 사랑으로

게인 코리아,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참여... #With 대구경북 캠페인

대구, 경북의 7,756명(2020년 3월 26일 기준)의 주민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자가 격리를 하는 등 전염성으로 인해 고립되어 있고 많은 지역민들이 사회적 부담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다.

이에 게인 코리아(GAIN Korea, 이사장 박성민 목사, 대표 최호영 목사)는 3월 4일부터 SNS를 통해 대구, 경북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With 대구경북 캠페인을 하고 있다.

키카오톡 배경화면을 위로와 응원의 화면으로 바꾸거나 해시태그를 하고 고틀과 소리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달라고 기부를 요청하였다.

게인 코리아는 3월 10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교회 및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나 사업체의 피해가 심각하고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강변교회 이명호牧사는 “우리 교회에 중증 장애인 아들을 가진 한 어머니가 최근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제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다고 눈물로 그 마음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게인 코리아는 #With대구경북 캠페인의 결과로 뜻있는 사람들의 정성을 모은 기부금을 9개 교회와 2개 기관에 전달하였다. (영명교회, 김형백 목사, 안촌교회 허정문 목사, 기쁨의교회 박동성 목사, 즐거움교회 박명하 장로, 정다운교회 이상훈 집사, 강변교회 이명호 목사, 참사랑교회 임호근 목사, 다음교회 김영업 목사, 심기온교회 임원호 집사, 동안주도회남부시찰정경호 목사, 대구CCC 배복환 목사)

게인 코리아는 공적 마스크를 한 달 사용할 수 있



는 분량인 13개를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약 500여 명에게 개인당 2만원씩 지원하여 총 6,500여 개의 마스크를 제공하였다. 다음교회 김영업목사는 “모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는데 마스크 지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들 중에는 코로나 19가 퍼져 있는 청도대남병원 근처에 집이 있는 학생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곤궁한 학생,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학생 등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였다.

경북대 4학년 현상진 학생은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재고도 없고 금액도 비싸서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패미집 게인 코리아의 재정지원으로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권지성 CCC기사는 “코로나 19로 알바도 끊어지고, 피부병으로 인해 알바비를 다 썼는데 마스크 지원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한 영남

대 학생의 말을 전했다. 박종식 CCC기사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시골교회에 갑작스러운 화재가 나서 교회 전체가 타서 잿더미가 되어 부모님은 화재 뒤처리로 정신이 없으시고 혼자 대구에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번 마스크 지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계명대 한 학생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구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경산 지역 시민들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도 마스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게인 코리아는 경산의 주은혜교회 편은식 목사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필터를 넣은 수제 마스크를 만들었다.

코로나 19로 가장 비싼 직종 중 하나가 택배회사이다. 대구의 한 택배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원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206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여러 번 재활용하거나 면마스크로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은혜교회에서 만든 420개의 수제 필터링마스크를 전달하였다.

인도 남부, 기독교인들 박해 심해

한국 VOM, 교회건물 파괴 및 목회자·교인 체포

지난 3월 9일(월) 오전, 인도 당국자들이 카르나타카(Karnataka)주 첼루르(Chealur) 마을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그 교회 목회자와 교인 10명도 체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그 교회 목회자가 건축 허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예배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도 인도 당국자들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소위 문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혐의로 교회 지도자들을 기소했다. 현재 11명 모두 구금된 상태이고 이들을 보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에서만 정부 당국자들이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인도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나라이다.

2014년에 모디(Modi) 총리가 취임한 때부터 종교적 소수에 대한 박해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 인도에 관하여 “인도의 종교적 소수집단의 상황은 지난 10년간 더 악화되었다. 비힌두교도나 사회 계급이 낮은 힌두교도를 따돌리려는 민족분사단(RSS), 의용단 일가(Sangh Parivar), 세계 힌두교협회(Vishva Hindu Parishad) 같은 힌두교 민족주의집단의 다각적 활동이 종교폭력과 박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이다.

무슬림, 기독교인, 시크교도, 불교 신자, 자이나교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힌두교도를 비롯해 이 운동의 표적이 된 이들은 폭력행위와 협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이 증가하고, 교육과 주택과 고용을 제한받는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WBH, ‘사랑의 쿠푸녹차세정수’ 전달식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대구시에

국제부티구호개발 NGO 씨월드뷰티원즈(WBH, 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3월 19일(목) 오전 11시 종로구 대호빌딩 광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세정수 전달식”을 김수현의 머리좋은사람들(대표 김수현)의 후원을 받아 3,000만원 상당의 쿠푸녹차세정수 2,016개를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정현일 이사장(신생대나루교회 목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고자 코로나19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손 소독제 천연쿠푸녹차세정수를 대구지역 교회와 병원에 지원하게 되었다.”며 “씨월드뷰티원즈는 그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왔는데 세정제 지원으로 대구 교회들과 병원 의료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월드뷰티원즈를 통해 대구 시민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영태 대표회장은 “성시화운동의 모토는 ‘전 교회 가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대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두상달 회장(국가조찬기도회)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써주시는 대구시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한 월드뷰티원즈와 김수현머리좋은사람들 두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월드뷰티원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뷰티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중앙회를 비롯하여 광주 및 경북지회를 두고 있으며 노숙자,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와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달 26일 시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 교회 및 시민 돕기 사랑실천 캠페인’에 일주일 만에 전국과 해외에서도 성금이 담겼다. 또한 (사)국가조찬기도회와 CBMC 중앙회, 서울동부터디스클럽 등도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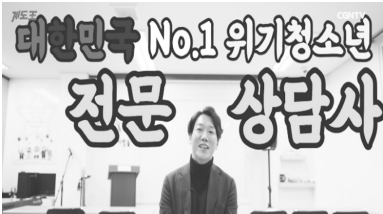
CGNTV, 위기 청소년 참교육 콘텐츠 ‘계도왕’ 런칭

‘I am 쌤’의 주인공 심규보 쌤이 ‘계도왕’으로 돌아왔다

CGNTV가 유튜브 ‘KNOCK노크’ 채널을 통해 3일 신규 콘텐츠 〈계도왕〉을 런칭했다. 2017년 페이스북 업로드 후 누적 조회수 864만회를 기록했던 KNOCK 미니휴먼다큐 〈I am 쌤〉의 주인공, ‘규보쌤’ 심규보 대표가 KNOCK 신규 콘텐츠 〈계도왕〉으로 돌아왔다.

〈I am 쌤〉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사랑으로 품어주던 심규보 대표의 이야기가 담겼다면, 이번에는 심규보 대표의 사람으로 변화된 위기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매일 방귀리의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계도(啓導, 남을 깨쳐서 이끌어 줌)하는 계도왕, 심규보 대표는 비영리단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 피해 아동 등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지킴을 돕고 있다. 본인 역시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던 심규보 대표는 남다른 포스로 위기 청소년을 감싸 안으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CGNTV의 ‘KNOCK노크’ 채널은 지난 2015년 개설되어 크리스천은 물론 비기독교인의 마음까지도 두드리는 복음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KNOCK 미니휴먼다큐’ 시리즈와 ‘KNOCK 미니홈’ 시리즈 등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심규보 대표는 〈계도왕〉시청자에게 “부디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냈다. ‘별’나다고 대물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특 ‘별’함을 찾도록 함께하는 심규보 대표와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CGNTV ‘KNOCK노크’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한경집 목사와 교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4.15 총선 소중한 한표 행사 적극 참여

미래목회포럼 성경적가치관 강조, 한동대 장순흥 총장 등 발제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은 지난 4월 3일(금)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6-1차 정기포럼'을 열고 4.15 총선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찰하며 기준을 제안했다.

미래목회포럼이 강조한 기독교인들이 세 영역(가치관, 삶, 능력)에서 검증된 능력 있는 인사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회 이슈(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를 벗어나 통합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진 후보를 택해야 힘을 강조했으며 또한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였고 법적, 윤리적으로 청렴한 삶을 살았을 후보를 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비른 국가관을 가진 후보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후보 △비른 역사인식으로 민족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 △선진 국가경쟁을 위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를 택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안했다.

포럼에서 고명진 대표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념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 미래를 책임지고 역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이상대 목사(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장순흥 총장(한동대학교) 등이 발제했다.

한 세기 여정 ‘아름다운 마침표’ 찍은 老 장로

향년 101세 故 이무영 장로, 30일 상지대 한의대에 시신 기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묵상하는 사순절, 생명을 하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으로 시신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한 老 장로의 사연이 마음을 울린다.

(재)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는 10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故 이무영 장로의 시신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1920년생으로 생전 논산 성동교회(주재권 목사)에서 은퇴 장로로 섬겨온 고인은 지난 1996년 1월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사후 각막 및 뇌사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으며, 당시 시신기증 역시 등록한 바 있다.

등록 후에도 수차례 연로한 몸을 이끌고 충청도에 서부터 기차를 타고 본부를 방문해 장기기증 및 시신 기증 절차를 상담하는 등 강한 기증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장로는 평소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등록증을 보여주며 기증에 대한 의사

인의 아내는 건양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기도 했다. 결국 노환으로 이무영 장로는 지난 29일 향년 101세의 나이로 소천했고 고인의 가족들이 기증 의사를 발원에 따라 본부를 통해 상지대 한의과대학에 시신 기증이 이뤄졌다.

딸 이해랑 씨는 "아버지는 평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시며 일평생 불의와 거짓 없이 사신 분"이라며 "마지막 순간, 이 땅에 희망을 남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을 존중하며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날 발원예배에 참석한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생명 나눔을 향한 거룩한 의지를 보여준 장로님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면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이어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달장애 청년들의 릴레이 연주 캠페인 ‘PLAY 하트!’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어요!”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오지철)이 2008년 창단한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함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을 시작한다.

〈함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는 연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도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첫 순서로 참여하는 바이올린 이동현 군은 평소 즐겨 연주하는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의 명창곡을 연주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이동현 군의 캠페인 참여 모습을 지켜본 이동현 군의 어머니 김순정 씨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자신들의 연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무척 대견했다.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연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아이스버킷챌린지와 유사한 형태로 캠페인에 참여한 연주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달장애인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장애인 연주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함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 캠페인은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youtu.be/WzNLUAcLYE>)

백석대·백석문화대 기독교동아리

IVF, 손수 만든 손소독제 90개 전달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내 기독교동아리 IVF(한국기독교학생회,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소속 재학생들은 4월 2일(목) 오전 9시, 교내 국제교류처를 방문해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해 사용예달하며 손수 제작한 손소독제 90개를 전달했다.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IVF 회장 이서호 씨(24·남)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져 마스크는 물론 손소독제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은 국가 외국인에 대한 혐

오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됐다”고 물품 전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동아리 모임이 어려워져 온라인 모임을 하던 중 선한 일을 위한 모금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였고, 모금액으로 에탄올, 클리세린, 용기 등을 구매해 손소독제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양 대학 조운용 국제교류처장은 “한국인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전해지도록 하겠다”며 “좋은 일을 실천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전도열매!

신학에 있어서 조직신학이 중요한 것은 올바른 틀 세우기이다. 주님 제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종말론 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종말론에 대한 인식도 4대 학파인 무전년설, 세대주의설, 역사적전년설, 후전년설의 주장이 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다.

초대교회 이후 이 구원받은 은혜 또한 신학적, 교리적 으로 이론이 체계화되면서 교부들의 구원론의 이론들이 정통과 이단으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구원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종말 계시록의 완성으로 마무리된다.

구원은 칼빈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론,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이론,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유대인처럼 행례를 행해야 한다는 이론, '주여 주여' 하며 믿는 것과 행함까지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이론, 다양한 주장과 이론이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 받는 증거를 말하라고 하면 단언컨대 그것은 바로 흔들림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전도다. 전도는 신학의 면류관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눅 10:20)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의 전도자들을 물리적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다시 말해 전도했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다. 또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이 말씀은 바로 율구엘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 19:27)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다는 것은(마 4:18-22)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다 순교했을 때 천년왕국에서 구원권과 통치권을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인 것이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론과 학문이 아닌 실질적인 구원의 도장을 받은 것이다.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500ml
20개들이 20,000원

500ml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산·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집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험)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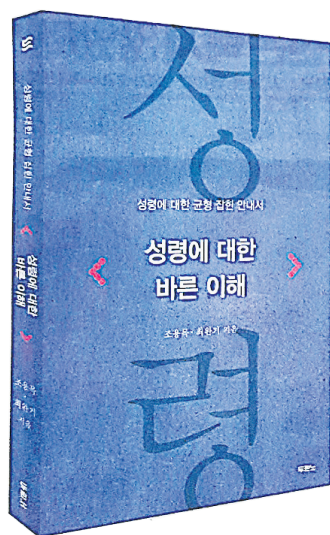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입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